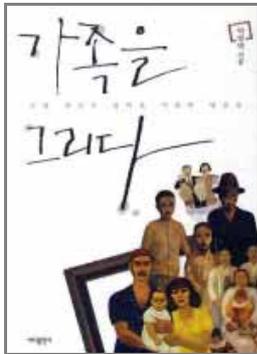


가



가

|

미술에서 가족을 찾다

양화의 가족의 탄생에서부터 한국 근 현대 미술까지 투영된 286쪽 여덟 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진 미술평론가 박영택의 『가족을 그리다』는 미술 작품 속의 가족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왔던 일반 미술애호가들에게 작가들의 가족과 그 이면의 삶을 헤아리게끔 만든다.

저자는 궁핍과 식민, 가부장적 가족의 틀 속에서 소외자 혹은 희생자들의 변혁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미술작품 속의 가족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시대와 가장의 권위와 짐, 아내와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피곤한 삶의 여정을 인식의 행로로 삼는다.

가족은 반성의 거울이자 작품의 모티브

대다수 미술 작가들은 소시민의 일상을 가족들에게 제공하지 못해 늘 가족에게 미안해하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은 작가들의 반성의 거울이며 작품의 주요 모티브가 된다. 부르주아들의 초상화에서 그뢰즈에 이르는 가족화는 전통과 갈등의 징조와 변화를 보인다.

저자는 이미 잘 알려진 흥행작가나 '체' Künstler(예술작가)의 작품들을 전범(典範)으로 삼기를 비교적 우회한다. 기름기 뵈 담백한 작품들, 통곡과 울분을 곱 삭인 많은 회화와 조각, 사진들은 사회학의 연구 대상과 상당한 동맥(同脈)에 서식하고 있다.

'가족, 그림 속으로 들어오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빛바랜 가족의 풍경', '모성이라는 틀', '즐거운 나의 집',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 '가족, 갈림길에 서다', '다시 만들어진 가족의 얼굴'의 그림 같은 소제목 자체의 담백함으로 이 책의 구성을 반영한다.

먼 의식으로부터 유입된 흐릿한 기억 속의 미술작품 분석들은 저자의 감각적 체험과 이성적 추출물을 총합하고, 남미 가톨릭 국가들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어 동시대의 우리들에게 '사색의 오름'을 또 하나 선사한다.

작가의 이면, 가족을 표현하다

작가들의 '가족의 얼굴과 숨결'을 그리는 시퀀스에는 둘, 셋, 넷, 여섯 개의 씬 들이 고급스런 에세이로 포장되어 있다. 박영택은 고급 수사관이 되어 작가의 이면인 가족을 은유적으로 끄집어 내어 문학적 수사와 미술사적 고찰, 미학적 품격으로 글을 기술해내고 있다.

저자는 그림 분석에 있어 '구운몽'적 용어 사용보다는 독자의 눈높이를 맞춘 리얼리즘을 택한다. 소외의 징후를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을 '큰 씬'(Long Take)으로 훑어 나간다. 제도라는 광기 속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무의식의 섭취'를 처연하게 서술한다.

자신을 서언에서 '엄청나게 비가족 혹은 반가족' 이라고 밝힌 이 책은 대부분 예술가들의 공통분모인 가족에 대한 헌신과 자상성 결핍에 대한 반성문이자, 가족의 소중함을 걸어로 말하지 못한 미안함의 소중한 징표이자, 가족들과 늘 좋은 관계를 이루고자 했던 물증이다.

가족 그림의 변천

인물의 발전은 원근법적 변이에 있음을 마지막 결론에 얻을 수 있다. 그 시발은 통통한 얼굴의 귀족의 모습에서 시작된다. 뾰박당한 인물들은 일제에 의해 인물의 통통함을 왜곡 당하지만 전쟁과 제도적 가족에서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4세기 중엽 만들어진 안악 3호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부부의 초상, 각저총과 수렵총의 부부그림에서 박영택은 가족의 역사적 맥락과 뿌리를 생각하고, 개화된 그림의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조선조의 『조씨 삼형제』를 가족 구성원을 한자리에 모아 그린 초상화는 없었다고 분석하면서 조선시대 초상화 역사에서 특이하고 주목할 작품으로 평가한다.

빛바랜 가족에 대한 풍경에 이르면 개화기로 대별되는 시기, 전쟁으로 인한 1950년대의 급격한 변화, 1960년대의 도시 산업화가 가족의 근간을 흔들고, 생존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는 새로운 개념의 가족 질서 탄생, 단아함을 벗어난 양적·물적 팽창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내다보게 한다.

가족그림변천에 따른 가족 문화

신학문과 서양문물이 진입되어 빛의 갈등을 넘어 필름, 특히 가족사진은 가족 구성원과의 결속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시각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영화 『내마음의 풍금』 속의 흥연(전도연)을 연상시키는 김기창의 『가을』, 이영일의 『시골소녀』, 박수근의 『아기 보는 소녀』, 이영학의 『아기와 소녀』는 가사와 동생을 업고 키우는 일에 내몰린 소녀들의 추억과 향수 이미지로 확장된다.

‘거짓’과 ‘환상’은 점차 무너지고 여인들은 주체 혹은 대등관계로 부상한다. 60년 단위로 재편되는 1984년부터 시작되는 여성시대 이전의 ‘남성시대’의 여성들이 미술작품에서는 ‘짐을 진 여성/희생물’(Women with Burdens/Victims)으로 집중 부각된다.

배운성의 『가족도』를 통한 위계질서를 넘어, 이쾌대의 『카드놀이하는 부부』를 통한 신가정 풍속, 장우성의 『화실』에서의 현모양처상, 핵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임군홍의 『가족』은 저자가 포착해낸 고전풍에 담긴 아련한 추억 속의 모습들이다.

가족을 소재로 한 다양한 그림들

김은호의 『화기』와 천경자의 『목화밭에서-어느 좋은 날』는 가능한 ‘바람’ 혹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꿈’을 보여주고 있고, 이왈종의 『제주 생활의 중도』, 이광택의 『살고 싶은 집』, 이만익의 『가족』은 신선/단란한 가족이 되고 싶은 꿈을 심화/상승 시킨 작품들이다.

아버지의 상실은 장육진의 『마을』, 『가족』이 냉정한 낭만적 인내, 가족의 붕괴와 해체의 대표적 사례로 이 중섭의 『길떠나는 가족』, 『현해탄』이 제시되고, 근대화의 변두리에 선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 『할아버지와 손자』도 전쟁의 상흔이 스며들어 있다.

그림 속에서 지속되는 전쟁의 상흔은 박래현의 『이른 아침』과 김기창의 『여인』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묘사된다. 임옥상의 『6.25 후 김씨 일가』는 섬진한 가족의 상실을 보여준다. 주명덕의 인화품 『익산』은 슬픈 전후가 이어온 가난이 가없이 엿보인다.

새로운 전쟁은 신학철의 『떠나가는 사람들』의 기차지 달동네의 풍경이다. 오윤의 『범놀이』, 『애비』, 『바람부는 곳 I, II』, 김봉준의 『횡단』, 『헌화』, 조환의 『민초-쪽방』은 참혹은 현실을 보여준다. 축수를 놓친 사람들은 가족의 상실과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가족의 다양한 얼굴들

저자는 마지막 시퀀스, '다시 만들어진 가족의 얼굴'의 현재와 미래의 바람을 동시에 담고 있다. 권여현의 일인칭 회화 『아름다운 시절-유년기』, 김을의 『고흥 혈류도』와 『임야도 등본』, 인간의 가족도를 도상화한 정복수의 『무제』를 통하여 전통사회가 마감되면서 증발한 공동의 신화에 대한 모종의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는 아직도 갈등을 도출시키고 있다. 조동환·조해준 부자의 『조씨 연대기』는 가족연대를 꿈꾸는 모습이고, 윤석남의 『족보』는 족보의 허구를 비판한다. 가정불화를 그린 방정아의 『집나온 여자』, 한애규의 『즐거운 우리집—불화』, 『즐거운 우리집—평정』는 현대인들의 다양한 불만들의 일부분이다.

여성의 가사 노동을 그린 이선민의 『여자의 집, 현우네』, 『여자의 집, 이순자의 집-제사풍경』, 인효진의 사진에서 보이는 인공적인 이벤트성 억지로 가족 만들기의 모습인 『메이킹 패밀리』와 『둥지에서』, 아이 레벨 가족이야기 『캔디와 레이』, 국제결혼, 동성교제, 다문화 가족의 삶, 독신 등의 문제들이 첨예하게 걸려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저자 박영택은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